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빠르게 찾자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남성우님

## 합격수기

### I. 개요

안녕하세요. 이번 제31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하게 된 남성우입니다.  
수험생활 중에 몇몇 합격수기도 읽어보고 나도 꼭 합격해서 수기 한번 써야  
지라고 다짐했었는데 막상 수기를 쓰려고 하니 그간 겪어왔던 어떠한 어려  
운 50점짜리 문제보다 더 글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방법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제 글을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 공부기간과 1,2차 시험의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II. 공부기간

저는 2011년 1월 3일 사당동에서 관세사시험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해 1차 시험이 있었던 4월에 합격을 하였고, 같은 해 2차와  
2012년 2차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그 후 학교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자는  
계획으로 복학을 했고, 2012년 2학기와 2013년 1학기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단 한글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겨울방학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놀면 뭐하겠나..공부 잠깐해서 덜컹 붙으면 나아 좋은 거고 안 되면 졸업하고 동차할 생각으로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세법을 인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2013년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덕분에 학교 졸업 후 2차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올해 2014년 2차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의 처음과 끝을 생각한다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공부를 한 기간을 따진다면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 III. 1차 시험

아시다시피 관세사 1차 시험은 2차 시험에 비해 상당히 수월합니다. 게다가 객관식이다 보니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부량은 있으나,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전략은 “1교시에 140점 이상 받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 였습니다. 약간의 편차를 고려해 생각해 보면 1교시에 140점 이상 받고도 떨어지려면 2교시에 한과목이 과락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상대적으로 관세법과 무역영어에 더 비중을 두어 공부를 했고 제가 생각한 것과 들어맞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차 시험에 있어서 이 이상 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IV. 2차 시험

#### 1. 관세법

관세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각각의 제도들이 도대체 뭐하는 제도인지를 파악하는게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먼저 관세법을 세율, 부과징수, 통관, 불복 등등으로 각각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의 파트가 다루고 있는 내용, 각 내용의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집중했고, 그 후에 세세한 내용들의 암기(예를 들어 물품등 반입정지 사유, 특허취소 사유, 부과고지 대상 등)와 다른 제도와의 연관성을 공부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각 제도를 그 제도 자체만 완벽히 공부한다면 올해 50점 문제에서와 같이 가산금등의 제도와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와 같은 문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 2. HS

HS는 말 그대로 품목분류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와 절대적인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전 암기에 약한 편이라 공부하는데 있어서 HS가 정말 힘들었습니다만 HS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공부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암기 또 암기입니다. 이해가 되도 외우고 안되도 외우고를 반복하다보니 각 류의 주규정과 호의용어 거의 대부분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부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법령집에 옮겨 적어서 한번에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통칙규정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통칙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답안을 서술하면서 통칙의 내용을 녹여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 3.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범위나 암기분량이 적고 내용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저는 관세평가는 공부해야하는 범위가 상당하고 한번 헛갈리기 시작하면 다시 교정하는데에 다른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사례를 보고 논점이 무엇인지, 관련 규정은 뭐가 있는지, 사례는 해당 법규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결론이 댈지 등등을 빠른 시간 내에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서술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관세평가 과목은 철저하게 전체를 이해해야하고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사례에 규정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4. 무역실무

수험기간동안 가장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 무역실무였습니다. 그 이유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암기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목의 특성상 “읽으면 이해되는데 막상 쓸 수는 없는” 내용이 많고 게다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실무는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로 구성되고 각각의 파트에

구성된 내용에는 무엇이 있다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즉, 큰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세세하게 작은 부분을 공부했으며 다시 작은 부분이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무역실무는 법규정이 아니므로 “말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꾸준히 읽고 공부하면서 나만의 문제로 해당 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V. 수험생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1.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빨리 파악할 것.

아시다시피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득하게 앉아서 오랜시간 공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시간에 깊게 집중하고 공부량을 짧게 짧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인 경우인데, 전 하루에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다(평균 7~8시간).

한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1시간30분정도로 했고 주기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쉬었습니다.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바람도 쐬고 전화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하고 쉬는 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자신이 최대로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짧더라도 알차게 학습하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새끼과목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무조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2012년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새끼과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점수도 딱 3점씩만 더 받았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새끼과목을 각각 3점씩 준비한다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야 3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반드시 제대로 공부하셔야 할 과목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명 새끼과목이라 부르는 환급특례법, 상품학,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상품학은 아예 공부하지 않았습다. 이유는 이 과목을 공부한다기 보다는 수업을 한번 듣고 그 내용을 무역실무처럼 써 내려가면 충분하고, 상품학을 공부할 시간에 HS법령집을 더 견고하게 암기하는 것이 1점

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 3. 노는 것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 노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았습니다. 빈둥거리고 싶으면 빈둥됐고 핸드폰만지고 싶으면 핸드폰 만졌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이 부담된다고 맥주한잔만 마시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이 부담된다고 성에 안 차게 논다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다시 책상에 앉는다 한들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전 “내가 놀고 싶을 때 제대로 놀아야 내가 뭔가 해야 할 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내려 놓았습니다. 수험기간에 술마시고 친구들 만나 놀러 나가고 하는 부분은 각자가 자신의 공부스타일에 맞게 조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4. 모의고사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를 지르게 되면 처음엔 할만하더라도 점점 범위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등수는 떨어지고 의욕도 같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종종 수험생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합리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실제 시험과 다르고 채점의 기준도 다르며 다만 실계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서술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모범답안을 검토하면서 본인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처 쓰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VI. 맺음말

저는 제가 다른 수험생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을 제치고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저보다 더 많이, 깊게 공부하신 분들도 불합격한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합격하지 못한 유예생, 3동차분들께서도 본인의 공부스타일을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홀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계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방법에는 절대적인 기준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기 관세사 남성우 드림

FTA  
관세무역학원